

## 문화정책에 따른 문화복지시설의 활용방안 연구

정 숙 희

국립안동대 교수

I. 서 론	V. 문화정책에 따른 문화복지시설의 활용방안
II. 문화복지와 문화시설	VI. 결 론
III. 자원봉사자와 문화의 집 활용사례	참고문헌
IV. 대중화를 위한 문화 정책의 전환	ABSTRACT

### I. 서 론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 하여 정부문화 비전과 문화정책에 대한 많은 정보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자원봉사자의 교육면에서 문화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기관장들의 인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읍·면 단위의 단·중·장기 교육과 대학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의 집 모델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문화는 일상적인 것이며 의미,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삶의 질」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는 여성문화, 생활문화, 청소년문화, 사이버문화 등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하며 여성단체가 주체가 되어 활성화되고 전문성과 고유성으로 향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 지역에 몇 회의 옵션으로 지원 받는다. 대상자의 90% 이상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활동에 대한 가치절하가 문제이다.<sup>1)</sup>

특히 문화의 집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농어촌에도 들어서고 있는데 이는 대표적 문화소외지역으로 꼽히는 농촌 풍경을 바꾸고 있다. 농촌 지도소 건물에 경남 산청 문화의 집이 들어선 뒤, 주민들이 지역 작가와 동호회원들이 마련한 공연에 1천명 가까이 모이기도 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가 232개인 데 비하면 문화의 집 수는 적다. 문화관광부는 2011년까지 500곳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잡았지만 예산은 넉넉하지 않다. 주민들이 문화의 집 운영에도 참여하도록 한다는 목표도 아직은 멀어 보인다. 이용객의 절반 이상을 학생들이 차지한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정갑영 연구원은 “일방적 강좌 중심인 백화점 문화센터와 비슷하거나, 그 지역 실정과 무관하게 다른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가져다 적용하는 곳도 있는데 문화예술 전문가에게 책임지고 운영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숙제들은 오히려 문화의 집을 어떻게 잘 가꾸느냐에 맞춰져 있다. 주민들이 찾기 시작한 새 유형의 문화공간인 문화의 집에 거는 기대도 그만큼 큰 것이다.

문화의 집은 프랑스의 「문화의 집」 Maison de la Culture(메종 드 라 쿼티르)을 모델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했다고 한다. 프랑스에선 1959년 드골 정부 때 문화장관에 취임한 작가 앙드레 말로가 「문화의 지방자치」와 「고급문화의 지방 확산」을 외치며 데파르트망(우리의 광역자치단체)마다 1곳씩 지역의 문화활동을 뒷받침하는 거점으로 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했다.

앙드레 말로 때 르아브르, 아미앵 등 지방 소도시 12곳에 문화의 집이 들어섰고, 이후 집권 정당이 바뀌면서 「문화활동센터」, 「문화개발센터」등으로 이름은 다르더라도 틀과 기능은 이어져 95년까지 61곳으로 늘었다.<sup>2)</sup>

국가와 지방정부가 절반씩 예산을 들여세우되, 운영은 별도의 정관과 조직에 따라 문화예술 전문가에게 맡기고 주민들의 취향·요구를 반영한 프

1) 신경희(1997). 커뮤니티의 문화공간 확충의 필요성과 방안(도시와 문화공간의 특징) 『문화도시문화복지』 24권 29호, 문화체육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 김춘이(1999). 프랑스 문화정책의 흐름, 한국종합예술학교 한국예술연구소, pp. 36~38.

로그래를 운영한다는 특징들을 우리 모델 개발에 반영했다.

규모는 우리의 시,군 문예회관쯤 되는데, 우리 문화의 집은 훨씬 작고 주민들이 직접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체험하는 생활문화 중심의 공간으로 꾸민 점이 다르다.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지하철을 타면 40분쯤 걸리는 외곽도시 불로뉴-비양쿠르에 98년 12월 문을 연 「란도프스키 공간」도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센터의 하나다. 지하 2층~지상 5층의 건물에 도서관(1~4층)과 전시실, 극장, 회의실이 들어서 있고, 1930년대 회화, 건축 등의 작품을 따로 수집해놓은 박물관도 있는 복합 문화공간이다.<sup>3)</sup>

도서관 2층을 모두 어린이만을 위한 공간으로 꾸미고 1층에 탁아방을 갖춘 점이 눈길을 끈다. 이런 내부 구성은 다목적 문화공간을 지향한 문화의 집이나 문화활동센터·문화개발센터와 닮았다. 지난 6~7월 우리 나라 작가 전수천씨가 이곳 전시실에서 초대전을 열기도 했을 만큼, 지역 주민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문화정책에 따른 문화복지시설의 설치와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지역의 주민들이 정신적 풍요로운 문화체험을 하는데 있어 문화의 집이 주민들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정책에 따른 문화복지 시설 활용방안 연구로서 읍·면·동사무소 단위의 「문화의 집」 시설 및 활용에 관한 것이다. 국내외의 경향을 고려하여 지역의 문화시설의 실태를 살펴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의 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데 있다. 분석에 사용될 자료로는 기존의 문헌자료 조사, 국내의 생활문화 공간에 대한 사례조사, 관계자 면접조사 등 2차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

3) 김강식(1995). 지하문화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p. 136.

## II. 문화복지와 문화시설

문화복지에 대한 연구는 90년대 이후 국내 뿐 아니라 일본의 「공민관」을 비롯하여 프랑스, 영국 등 각국에서 활발히 연구 중에 있다. 정부가 밝힌 문화비전 1차 년도는 1999년도부터이며, 1983년에 「문화의 집」을 만들자는 정책이 시작되었다. 문화공간은 보고 듣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기 삶을 충실화하는 작업장이므로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 공간으로 시작되었다.

문화복지의 인프라는 그 동안 다양한 형태로 설명되어 왔다. 재정, 관객, 정부, 소프트웨어, 시설, 프로그램, 정보, 그리고 환경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공립 문화공간의 문화인프라를 위해서는 재정과 전문인력의 적절한 확보와 활용이 최우선 과제이다. 외국의 문화복지기관이 사회간접 인프라가 충분히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후원체제 확보에 안 내자 역할을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sup>4)</sup>

21세기는 문화의 집이 읍·면·동으로 확대되는데 보편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상류계층 보다는 대중으로 파고드는 문화를 말한다. 그리고 더불어 하는 통합적 문화의 세기로 지역사회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근린생활 단위의 문화시설은 주민들의 공적인 모임의 장소이며, 동사무소를 통한 문화의 집은 주민들의 문화정서의 체험장소이다. 공적인 공간에서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는데 경제적 이해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다. 문화공간이 여러 단체를 거쳐 운영하다보니 그 모양은 없고 가야할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을 살린 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도서관, 박물관, community center 등 각자의 기능을 살린 문화의 집이어야 한다. 공간의 다양성을 살린 도서관, 문화강습장 등의 문화 공간 선택은 지역주민이 되어야 한다.

---

4) 앞의 책, pp. 132-140.

### III. 자원봉사자와 문화의 집 활용사례

#### 1. 자원봉사자의 활용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유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문화전문인력인 자원봉사자들의 교육, 양성 활용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된다. 자원봉사자는 사교·예술활동을 통해 권위, 파워, 쾌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기관 중심이 아닌 인간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또한 자원봉사자는 문화 향수자들에게 쉽게 작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원봉사 양성 면에서 공간별로 그 지역에서 프로그램별로 훈련되어야한다.

자원봉사는 미국의 개신교에서 시작되어 봉사하는 시민의 역할로서 교회 중심으로 미국종교문화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정신적 기반이 없이 시작되어 봉사개념에서 문화봉사는 자신의 전문성을 봉사하는데 매일 1년 정도 교육을 받아서 내용과악 설명을 다할 줄 알아야하며 합격률은 10% 정도이다.<sup>5)</sup>

현재문화 시설에 종사하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수는 많지만 자원자들의 책임감과 지식 부족으로 실제 활용인원은 적다. 조기축구회나 어머니 합창단 등과 같은 단체를 통한 프로그램을 특성화하여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다. 구청의 테니스 회원제 등 자생적 조직체계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하고 설치 내용으로 매년 1,500억의 재원이 확보될 전망이다.<sup>6)</sup>

#### 2. 문화의 집 활용사례

인천발전연구원의 「전국 7대 도시 문화의 집 현황 및 점유 비율」 자료에

5) 서연호(1997), 전문적이고기술적인 봉사자로서 성숙되게 하는 전문과정들, <일본의 문화진흥과 문화복지(2) 해외문예> 『문화예술』, 11월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p. 140.

6)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98), 자원봉사 관리자를 활용한 문화자원봉사 활성화방안연구, 정책과제 98-6, pp. 15-20.

따르면 인천의 종합공연장은 1개로 서울 9개, 부산 4개, 대구 2개, 광주 2개, 대전 2개, 울산 2개 등에 비해 가장 적다. 일반 및 소 공연장 수도 인천은 서울의 10분의 1인 7개로 전국에서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의 미술·박물관과 문화원 역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미술·박물관은 인천이 모두 6개로 서울(86개)과 경기(32개)보다 크게 부족하다. 인구비례로 보더라도 인천은 41만7000명당 1개꼴로 서울(11만 6000명당), 경기(30만 명당)에 비해 뒤지는 실정이다. 문화원수도 인천은 4개에 불과한데 비해 서울과 경기는 22개, 31개다.<sup>7)</sup> 인천에는 인천항 100주년 기념탑, 맥아더 동상등 국적 불명이나 민족 주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많은 조각품 등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 문화예술 시설과 활동은 시민들과 문화예술계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최근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5% 이상이 불만을 표시했다. 인천의 문화예술이 이처럼 불만을 사는 것은 인천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마인드 부족과 지원 행정 미흡, 지역 문화 예술계에 팽배한 〈서울 문화 종속〉 풍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 95년 이전에 문화재단을 각각 설립, 민간 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설립기금 부족 등으로 인해 오는 2003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sup>8)</sup>

한편 서울의 서대문 문화의 집은 문화상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각종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생활용품, 버스카드, 지하철 정액권, 기차표, 항공권, 우표, 현금서비스, 공연·스포츠티켓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문화의 집뿐만 아니라 시·군 구민화관, 청소년복지센터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첫째, 지역특성, 이용자특성, 공간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센터」 적합하고 다양한 「문화의 집」의 기본개념과 지역에 대한 기대효과를 거두도록 한다.

7)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98). 일선행정기관의 문화복지센터와 방안연구 정책과제 98-1. p. 54.

8) 앞의 책, p. 76.

둘째, 기존의 읍·면·동사무소 공간을 「문화의 집」 조성 사업비로 지원한다. 그 선정 기준은

- ① 「문화의 집」설치계획과 공간구성 및 프로그램 계획이 지역특성을 충분히 반영되어 적절성이 있는가.
- ② 문화전문인력을 어떻게 확보하여 운영할 것인가.
- ③ 설치 후 운영계획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프로그램, 인력, 재정계획 등을 중점 반영)

셋째, 읍·면·동사무소 「문화의 집」설치이후 경영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IV. 대중화를 위한 문화 정책의 전환

지금의 시대는 변화의 시대 또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라고들 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그럼 과연 무용계는 대중문화의 정착을 갖기 위해 어떠한 관점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정치적 암흑기를 벗어난 현 시점에서 앞으로 문화정책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해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먼저 대중문화의 정착을 갖기 위해 거시적으로는 세계화를 위한 문화정책에 시각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의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은 정보화사회 후기 산업사회에 걸맞는 문화를 통한 보편적 일상적인 삶의 활력화이다. 이를 위하여 「결에 있고 함께 하는 문화」, 「누구나 즐기고 신명나는 문화」라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규제에서 자율로」, 「창조 계층에서 향수 계층으로」, 「분단에서 통일로」, 「보다 넓은 세계로」 등등의 실천강령을 만들어 하나하나 정책화하고 풀어나가고 있다.<sup>9)</sup>

이러한 대중화의 단계를 거쳐 세계화의 단계로 발돋움하는 정책의 일환은 교육의 측면에서도 유사한 변화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 현 대학사회교

9) 강철근(1995). 우리문화의 세계화, 『문화예술』, 10월호, pp. 28-29.

육은 모든 국민들에게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의 이념으로 교육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10)</sup> 특히 1995년 5월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에도 열린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 과제로 일반 대중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열린 학습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평생학습을 구호 수준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의 교육현장 개혁 실천 전략으로 연결시켜 보려는 정책적 의지를 천명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정부의 문화 정책 방향과도 그 의미를 연장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무용의 대중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관점은 미래 지향적 사회를 직시하면서 개방된 공간 대학교육과 사회교육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관점에서 시각을 함께 해야 할 때라고 본다.

우리 나라의 현 정부는 대중문화복지 정착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점은 크게 참여하는 문화복지 수립이 있어야 할 것이며, 문화향수 기회의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첫째는 참여하는 문화 복지 수립이다. 교육분야든 대중의 문화복지 분야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자원을 서로 공유하고 나아가 종합적 복지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의 기관이건 사회교육기관이건 복지를 총체적으로 보고 사회적 목표를 그에 맞게 구조화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목표는 헌법에서 이미 총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적 노력으로 달성하여야 하는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 보다 큰 실현가능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강제력을 지녀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향유하는 복지 중심, 개별복지 중심으로 마련된 사회복지기본법을 강화하여 가족 복지, 지역복지, 문화복지 실현의 전위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 육성을 위한 제도적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리라 본다. 그리고 민간차원에서도 문화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복지, 지역복지의 강화를 통하여 비로소 사회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원칙에 사회적 합의를

10) 노종희(1996), 『신교육체제 정착을 위한 대학 사회교육의 역할 제고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p. 9.



유도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무용의 문화향수 기회의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용에 대한 문화향수 능력의 제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사회교육으로서의 문화예술 수용능력제고 교육의 확산을 꾀하며, 지역, 직장, 동아리 모임 등에서 무용의 문화예술을 소개할 수 있는 인적 배출을 위한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유아시절부터 문화예술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유치원 문화예술교육 모델개발’, 어린이집, 놀이방 등에 어울리는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해야하며 이 경우 아동의 정신적 육체적 발달을 고려하여 고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론적 경험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문화 향수권의 확대적용을 통한 저소득층, 노인, 아동, 주부, 장애인 등에 대한 문화예술기회를 확대하며, 가족, 직장 및 지역중심의 무용 예술 문화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즉, 무용예술 공연에 있어서 가족티켓을 할인가격으로 발매를 유도하고, 직장단위의 무용문화소집단 운동을 적극 적으로 장려하도록 기업에 권유해야 한다. 이 경우 경비는 사내 복지비 지출로 승인하여 세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

무용의 문화복지에 관한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절실한 이유는 대중 문화로서 뿐만 아니라 세계질서의 새로운 판도를 몰고 21세기를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복지시설 확충과 활용은 21세기의 거대한 변화와 함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무용을 위한 복지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 V. 문화정책에 따른 문화복지시설의 활용방안

문화의 집은 동을 대상으로 면·읍 자치체로서 1999년 3월~ 8월에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다(5개 시도에 130개). 지방은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있으며 인구는 적으나 면적에 비례해서 볼 때 그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의 집 이용 인구의 확대를 위해서는 문예진흥법 개정과 한국 문예진흥원의 개혁문제가 시급하다. 지난 1972년 문예진흥법이 제정되고 다음해 설립된 문예진흥원은 그간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창구면서 관(官)주도로 이뤄지는 지원구조의 폐단 때문에 개혁이 요구되어왔다. 특히 근래 문예진흥기금의 강제모금 조기폐지, 공공기금 전환 등의 조치이후 문화관련 시민단체들 사이엔 “이들 법과 기금의 성격을 포함한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 민족 예술인 총 연합(이하 민예총)은 서울 낙원동 민예총 대강당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문예진흥원의 구조개혁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재현(문화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박인배(민예총 기획실장)·박찬경(미술평론가)등이 주제발표를 통해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문예진흥원 측에서도 오양열 지원2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 문예진흥기금의 성격·재원 확충방안·배분방법·지원 대상·대상자 선정방식 등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폈다.<sup>11)</sup>

발제자들은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변화시키고 문예진흥기금(4월 현재 3800억원) 운영에서 공정성·형평성·투명성을 확보하려면 문예진흥원을 민간 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의제 행정위원회 형태가 타당한 것이다.

지방의 주민들도 문화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인구비례에 의해 구성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의 정책에 따르지만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의 집」 설치를 하여 소외된 지역에도 문화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면·읍·동사무소 문화복지 공간은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정서적, 심미적, 창의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체적으로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학습하며,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초점을

---

11)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98), pp. 54-57.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면·읍·동사무소 「문화의 집」은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성화 되어야한다.

경북의 포항(1999년 4월 설립), 김천(1999년 3월 설립), 안동(2001년 9월 설립), 구미(1997년 12월 설립), 영주(1996년 12월 설립), 칠곡(2001년 8월 설립)에 문화의 집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경북의 경우 경주엑스포를 비롯하여 봉화, 의성, 영주, 포항 등 문화의 집 활용보다는 유교권의 영향으로 각종 공연이나 행사들이 주로 전통 가옥이 있는 문화재 단지의 야외 공연장을 이용하였다. 안동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축제로서 오천 군자리 〈성주풀이〉문화행사,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안동 국제 무용페스티벌〉, 〈세계유교문화축제〉, 〈하회 물놀이동 축제〉 등 축제1위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현재의 시대는 고도정보화 사회이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성숙되고 발전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상식화되어 있다. 이러한 때에 국민들이 더욱 세련되고 보다 많은 문화향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대중문화로서의 무용은 질적, 양적 성장이 정부의 문화국가 건설정책의 과제이며 부분적 목표일 것이란 것은 자명하다.

해방 이후 무용연구소와 같은 형태로 존속되어 있던 무용계는 이제 전국의 43개에 달하는 대학의 학과를 통해 지도자가 양성되고 있으며 공연은 연중 절반의 기간만큼은 올려지고 있다.<sup>12)</sup>

한편 무용계가 택한 유력한 방안은 전문인 양성을 통해서 춤의 기반을 확대하고 공연의 양적 증대를 기한다는 것이었다. 60년대에 처음 대학에 무용 전공학과가 설치되기 시작하여 80년대 후반의 무용 열기가 양적 팽창, 90년대 중반에까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무용계는 80년대 당시의 대중적 호흥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무용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표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sup>13)</sup>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무용의 양적 성장보다 더욱 중요한 점을 간과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2) 김채현(1995). 양적 팽창에 기운 수동적 태도 배제를, 『문화예술』, 8월호, p. 26.

13) 앞의 책, p. 26.

지난 50년간의 한국사회는 대내적으로 독재를 청산하는 민주화의 발판을 구축했으며, 대외적으로는 비 주체성을 물리치는 자주화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와 문화는 동일 선상에서 그 의미를 부과하였으며, 나아가 문화창달에 자주화와 민주화를 불게 하였다. 이러한 사회변화는 제도적 장치로 탈바꿈되는 즉, 대학교육에 기대를 갖게 했다.

이는 사회변화와 관계한 대학무용교육의 입장이 주체의 입장과 객체의 입장을 따로 분리해서 해석하기 어려우며, 이런 까닭에 두 입장 사이의 균형을 찾는 일이 그간 50년간의 과제로 존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대학무용교육과 사회 관계를 반성하는 데서 시각을 함께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런 뜻에서 무용계의 관행처럼 굳어진 객체의 모습으로부터 주체의 모습으로 대 사회적 위상을 재조정해 나간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당연한 의무라 생각한다.

## VI. 결 론

지역주민의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이 신장되고, 문화복지가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문화의 집」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문화복지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와 프로그램이 담보되어야 한다 즉, 예술 향유를 위해 보고, 듣고, 느끼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관람문화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이 각 교육기관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

셋째, 문화예술 공연정보를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각종 인터넷 통신과 매스 미디어를 통한 정보 매체들의 역할을 통해 네트워크화 된 정보

전달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본다.

넷째, 공연문화나 문화공간에 대한 운영에 필요한 조직화된 인력 양성이  
다. 특히 지역의 자원봉사자나 대학의 동아리 결성 지원 등 다양한 자발적  
문화 소모임 활성화 문화수요자를 조직화 해주는 기능이 요구된다.

#### ■ 참고문헌

- 강학순(1994). 지역발전에 관한 문화생태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미간행.
- 교육개발(1997). 2000년대 한국 교육의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통권  
109호.
- 김강식(1995). 지하 문화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미간행.
- 강철근(1995). 우리문화의 세계화, 『문화예술』, 10월호, pp. 28-29.
- 김채현(1995). 양적 팽창에 기운 수동적 태도 배제를, 『문화예술』, 8월호, p.  
26.
- 김문환(1994). 미래를 사는 문화정책.
- 김문환 · 양건열 공저(1998). 『한국문화정책 연구의 동향』, 한국문화정책 개  
발원
- 김춘이(1999). 프랑스 문화정책의 흐름. 한국종합예술학교 한국예술연구소.
- 노종희(1996). 『신교육체제 정착을 위한 대학 사회교육의 역할 제고방안 연  
구』, 한양대학교.
- 문화체육부(1994). 문화향수 실태조사
- 서연호(1997). 전문적이고기술적인 봉사자로서 성숙되게 하는 전문과정들,  
〈일본의 문화진흥과 문화복지(2) 해외문예〉 『문화예술』, 11월호, 한국  
문화예술진흥원.
- 성기선(1998).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문화 학습의 역할과 방향 〈풀뿌  
리 문화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기획

- 신경희(1997). 커뮤니티의 문화공간 확충의 필요성과 방안(도시와 문화공간, 특징), 『문화도 시 문화복지』 24호, 29호. 문화체육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이준하(1996). 문화부문의 정보 차에 관한 연구. 서울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98). 『문화예술』 1~3월호.
-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98). 일선행정기관의 문화복지센터와 방안연구 정책과제 98-1.
-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98). 자원봉사 관리자를 활용한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연구, 정책과제 98-6
-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99). 주민자치와 문화복지. 99문화정책토론회.
- Guinn, R. (1980). Elderly recreational vehicle tourists: Life satisfaction correlates of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 (3), 198-204.
- Iso-Ahola, S. e., & Wessinger, E.(1984). Leisure and well-being: Is there a connection?, *Park and recreation*(June), 40-44.
- Kelly, J. R., Steinkamp, M. W., & Kely, J. R. (1987). Later life satisfaction: Does leisure contribute? *Leisure Sciences*, 9, 189-200.
- Mannell, R. C. & Zuzanek, J.(1988, October). Leisure and non-leisure states during daily life for older adults reporting different levels of life satisfaction. Paper presented at the NRPA meetings, Indianapolis, Illinois.

## Abstract

### **A Study on the Promotional Plan for Newly Developed Cultural Welfare Facilities Based on Cultural Policy**

Sookhee Chung  
*Professor of Dance*  
*Andong National University*

The 21th century, referred to as the century of cultures, is presenting much information and data on government's cultural vision and cultural policy. In terms of the education of voluntary service worker, it is desperately necessary to make a shift in thinking of the agency heads who provide intensive education for those having a great knowledge of cultures. Short-, medium- and long-term education is needed on the unit of eup(town) and meon(township), and the development of the model for the home of the culture is needed as the program that can be provided at the college level.

There are 232 basic self-governing bodies, but there is a small number of the homes of the culture in Korea.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has the plan to increase the number of the centers of the culture to 500 till 2011, but does not have enough budget for it. The objective of inducing residents to participate in the operation of the home of the culture still has a long way to go. More than half of the users visiting the home of the culture are students.

It is said that the home of the culture was developed to suit our realities by modelling the home of the culture (maison de la culture). At the time of De Gaulle government in French in 1959, Andre Malraux, literary writer, appointed as the minister of culture, cried for the 'local autonomy of the culture' and the 'local diffusion of the high culture' and went ahea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home of the culture as the stronghold supporting the cultural activity of the locality in each department(our wider-area autonomous body).

Therefore, this study was intended to probe the plan for establishing and promoting the cultural welfare facility based on the government's cultural policy. That is, this study aimed to present basic materials for local residents to be able to use the

home of the culture as the space for cultural welfare programs in having the cultural experiences of spiritual abundanc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realities of the cultural facilities of the locality in consideration of their domestic and foreign tendency and present a new model of the 'house of the culture' well-suited to the local characteristics. Secondary data obtained from the research of the existing literature materials, the case study of the living and cultural space and the interview with those concerned were used as data used for analysis.

To improve the cultural susceptibility and creativity of local residents and promote cultural welfare, it is necessary to embody the home of the culture to perform a role and function as the cultural welfare space by probing the plan to establish the 'house of the culture' at city, county and district or township, town dong offices.

For this purpose, it is first necessary to secure the space for local residents to have cultural experiences and have the related program. That is, it is urgent to provide local residents with the conditions for them to see, hear, feel and appreciate artistic works to enjoy arts.

Second,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for spectator cultures. To this end, institutional arrangement is required for a diversity of life-long learning programs to operate at each educational institu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information on cultural and artistic performance. To attain this goal, it is thought that the networked information transmission system through the role of information media such as the Internet and mass media is desperately needed.

Fourth, it is necessary to educate and train organized manpower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performance culture and cultural spac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 small group of diverse voluntary cultures and organize cultural consumers such as support for the formation of local voluntary service workers and college club.